

우리들의 아들 박종철 고문의 죽음을 애도한다.

대한의 아들, 종철아!

네가 그 모습으로 죽다니!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이 어미들의 간장을 끓어놓고 떠나다니!

너를 죽인 자가 누구냐? 네 조국이 아니냐?

네가 무슨 대역죄라도 졌단 말이더냐!

친구 이름 불지 않은 것이 그렇게도 죽을 죄란 말이더냐!

민주사회, 정의사회, 평화사회 만들자는 너의 합성이 죄과였더냐! 내 아들이!

서울시민이 활보하는 대낮에, 너는 서울 한복판 대공수사단 고문실에서 피터지게 얻어맞으며, 배터지게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며……그래 친구의 생명이 더 중요해, 나라의 민주화가 더 귀중해, 끝내 하늘같은 네 생명을 그 악마들에게 주어버린 너는 정말 못한 놈이었다. 어미들의 애(腸)를 끓고간 불효자식이다.

아니다! 우리 대신 네가 죽었구나!

지지도도 못한 이 나라가 하늘같은 생명을, 젊은 목숨을 죽였구나!

고문과 폭력으로 버터가는 악마같은 전두환 정권이 우리들의 아들, 딸들을 하나씩 둘씩 죽이고 있다.

최루탄과 체포와 곤봉의 세례속에서 버티며 커온 너는, 끝내 폭력고문으로 꽃같은 인생을 악마들의 손에 의해 마쳐버리다니…… 아! 종철아!

민중의 지팡이가 곤봉이 되어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아버지(경찰-정권)가 아들(종철-민중)의 목을 조르는 사회, 그래서 늙은이가 젊은이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회는 이제 다 끝장난 사회다.

이땅의 민주-정의-평화는 너의 죽음과 함께 한 줌의 잿덩어리로 화(化)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대학가에서, 고문실에서 피 토하며 죽어가는 사회를 이제는 이 어미들이 맞서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피맺힌 한(恨)을 풀어줄 것이다.

어미들은 통곡한다! 어미들은 분노한다! 어미들은 호소한다!

1. 종철이를 살려내라! 우리 아들의 생명을 보상하라!
2. 행방을 모르는 40 여명의 우리 아들 딸들을 내놓아라!
3. 고문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내놓아라!
4. 불법. 강제연행과 구금을 즉각 중단하라!
5. 인간도살장 대공수사본부는 자폭하라!
6. 고문. 강간정권은 물러가라!
7. 살인정권 물러가라!

여성단체연합생존권대책위원회

가톨릭여성농민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여민회
또 하나의 문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서울노동운동연합 여성부

여성사회연구회

여성의 전화

여성평우회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분과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농민회연합회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회위원회

목도

찬송 (521장)

성경말씀 (예레미야 51:49-50, 52-53)

은세상에서 술한 사람을 죽인 바빌론,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죽인 죄별로 망할 때가 되었다. 그런즉, 칼을 피한자들이 빠져 나오니라.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멀리서라도 이 야웨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너희가 그토록 울부짖더니,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오고 말았다. 내가 말한다. 바빌론 신상들을 벌하는 날,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가 온 세상에 사무치리라. 요새를 하늘에 닿게 쌓아도 내가 침략자를 보내어 바빌론을 헐어 버리리라. 이는 내말이다. 어김이 없다.

찬송가 (515장)

주기도문

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교회 성서찬송 모음집 제14권, 주 24:15)

EBENEZER: 8.7.8.7.
T. J. Williams, 1890

L. R. Lowell (1819-1891)
모듬으로 3/4 = 100

1.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 니
2. 고상하고의 담다 진리 편에 서나 일서
3. 순교자의 피로써 주의를 더 목강 하다
4. 악이 비록 성화 여도 진리 더 목강 하다

참과 거실 새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도라
신과 리가 되 해를 반고 명에 익해 가도라
신과 리가 되 해를 반고 명에 익해 가도라

주신 새 목표가 우 리 앞 에 보 이 니
신한 자는 새 물려 무용 우 리 감 한 제 세
우 리가 는 그 앞 길 에 어 둔 장 막 주 나
도

빛과 어둠 사 이 에 섰 하 며 살 리 라
진리 한 자는 오 는 그 날 까 지 리 라
나 님 이 사 함 계 계 행 상 지 켜 주 세 리 아 멘

제자의 길

515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가 515장)
뜻없이 인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약 2:14)

LLANGLOFFAN: 13, 14, 14
Welsh Hymn Melody
from D. Evans' Hymnau A Thonau, 1865

L. Hays (1838-1905)

조금 빠르게 3/4 = 100

1.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 요
2.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우 병에 말 거 사 는 그 생 화 아 니 라
우 한 자 정 계 함 이 주 님 의 뜻 이 라

우 리 의 믿 음 치 솟 아 독 수 리 날 듯 이
해 아 래 암 박 있 는 곳 주 거 기 계 서 시

주 뜻 이 이 께 지 이 다 외 치 며 사 나 니
그 관 로 막 아 주 시 어 경 의 가 사 나 니 아 멘

Not in dumb resignation

제자의 길